

남방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 (4)

— 『청정도론(Visuddhimagga)』
14장(khandhaniddeso)을 중심으로 —

김경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조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바왕가(bhavaṅga) 개념을 중심으로 테라와다(Theravāda)의 정체성 확립과정을 검토하는 4번째 연구로서, 심법과 함께 인식과정이론(citta-vīthi)을 상세하게 서술해주고 있는 『청정도론(Visuddhimagga)』 14장에 언급된 22개의 용례들을 검토했다. 이 용례들 속에서 바왕가 논의는 이전의 문헌들에서 논의된 교리적 관점, 특히 아비담마 일곱 번째 논서인 『팻타나(Paṭṭhāna)』의 세계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앞서 산발적으로 언급되던 무간연(anantara paccaya)이 심발생의 조건(paccaya, 緣)으로 적용되고, 전향(āvajjana)의 발생과 여운(tad-ārammana)의 소멸과 함께 바왕가가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죽음심(cuti-citta)과 재생연결심(patisandhi-citta)이 바왕가와 동일시되어 전생과 현생을 연결하는 모종의 연속성을 확보해준다. 그러나 이전 논의들과의 이러한 공통점에서 더 나아가 『청정도론』은 주석전통 특유의 체계적인 심법 이론을 바탕으로 인식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14가지 심적 기능들을 차례대로 정밀하게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89심법 중 바왕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19개의 심법들이다. 이들은 모두 무기심(avyākata, 無記心) 중 이숙심(vipāka, 異熟心)에 속하며, 출세간을 제외한 삼계(三界)에서 각각 19개-욕계심(kāmāvacara citta, 欲界心) 10개, 색계심(rūpāvacara citta, 色界心) 5개, 무색계심(arūpāvacara citta, 無色界心) 4개-의 이숙심들로 발

생한다. 이러한 점들은 『청정도론』이 기존의 테라와다 논서들의 세계관을 답습함과 동시에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심법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더불어 바왕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19개의 심법(이숙심)들 역시 여타의 70심법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심법논의의 범주에 속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청정도론(Visuddhimagga)』, 바왕가(bhavaṅga), 인식과정이론(citta-vīthi), 이숙심(vipāka), 19심법(心法)

I. 서론

본 논문은 남방 테라와다 아비담마의 핵심개념인 ‘바왕가(bhavaṅga)’의 전개과정을 탐구하는 네 번째 연구이다. 논자는 본 논문을 포함한 일련의 연구논문들을 통해 초기 문헌에서부터 후기 주석전통(CE 12세기)에 이르는 테라와다 문헌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바왕가 개념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분석하고, 남방 테라와다 전통이 아비담마 체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이제까지 논자는 초기문헌인 『넛띠빠까라나(Nettipakaraṇa, 이하 Netti)』와 『밀린다빵하(Milindapañha, 이하 Mil)』, 그리고 아비담마 제7논서인 『팻타나(Paṭṭhāna, 이하 Patt)』에서 발견되는 바왕가 개념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자료부족으로 인해 Patt 용례검토는 1~2권까지만 진행된 상태이며, 차후 자료가 갖추어지면 남은 용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3단계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Netti에서 총 15회에 걸쳐 언급된 용례들이다. 여기서 바왕가는 아직 아비담마 전문용어로 정착되지 않았다. 이는 bhava와 aṅga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복합어로서 문자 그대로 한 존재(bhava)의 윤회를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aṅga)을 의미한다. 이때 바왕가는 12연기 항목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주로 복수형태로 언급되며, 심법은 물론 색법도 포함한다.

제2단계는 Mil의 용례들이다. Netti의 경우와 달리, Mil의 바왕가는 이후 전개될 바왕가 개념의 맹아로서 인식과정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주는 전문용어이다. 여기서 바왕가는 깊은 잠에 들어 꿈조차 꾸지 않는 비활동 상태를 지칭한다. 앞서

Netti가 12연기 항목에 해당하는 심법과 색법을 총칭하는 용어로 바왕가를 사용했다면, Mil는 무기심(avyākata)의 범주에 속하는 심법으로만 바왕가를 묘사하고 있다. 더불어 바왕가는 꿈꾸지 않는 수면상태로서, 특정한 인식대상을 결여한 비활동 상태에서도 마음이 끊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심법이다. 경장의 세계관과 다소 충돌을 일으킬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규정은, Mil에 이르러 바왕가가 본격적으로 아비담마 전문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¹⁾

제3단계는 Patt의 용례이다. Patt에서 바왕가는 인식과정이론에 적용되는 아비담마 전문용어로 사용된다. 이 단계에 이르러, 바왕가는 이숙 무기법(vipāka-avyākata)이며, 언제나 무간연(anantara-paccaya)을 조건으로 발생한다. 이 특수한 심법은 일반적인 인식과정 이론 속에서 전향(āvajjana)의 발생조건이 되며,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는 또 다른 바왕가, 즉 재생심(upapatti-citta)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²⁾

이상 3단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바왕가는 ‘존재의 요소’를 지칭하는 일반 복합어에서 오직 심법에만 적용되는 전문용어로 전환되었다. 더불어 뚜렷한 인식대상 없이도 마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심상태를 의미하는 특수한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자칫 니까야의 심법을 역행할 수도 있었던 이 모호한 개념은 아비담마 논서인 Patt에 이르러 테라와다 고유의 인식과정 이론을 구성하는 완성된 개념으로 정착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Patt에서의 바왕가 용례와 이전 텍스트들에서 발견되는 용례들 간에 의미상 간극이 생겼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했듯, Mil에서는 아직 인식과정이론이 언급(혹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바왕가 또한 심법으로만 규정될 뿐, 구체적인 아비담마 전문용어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Mil와 Patt의 중간단계를 보여줄 만한 텍스트는 찾지 못했다. (논자는 다른 논문을 통해 『解脫道論』이 Mil와 Patt의 간극을 잇는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이다.)

한편, Patt 이후 CE 5세기 주석전통에 이르러, 바왕가는 더욱 명료하고 적극적인 전문용어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논자가 이번 논문을 통해 살펴볼 용례, 즉 Patt 이후 제4단계로 상정한 텍스트는 바로 『청정도론(Visuddhimagga, 이하 Vism)』이다.

Vism는 테라와다 정통성의 절대적 준거이자 동시에 주석전통의 시발점이 되어주는 문헌으로서, 테라와다 전통이 추구해온(혹은 추구하는) 세계관을 총 23장으로 집약시킨 논서이다. 바왕가는 Vism 전체를 통틀어 총 81회 언급된다: 1장(6회), 4장(15회),

1) 이상 바왕가 개념의 1-2단계와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는 Collins 2004, 225-261; Gethin 2005, 159-181 참고.
2) Patt의 전체구조에 대해서는 Kyaw 2014, 49-97; Patt를 중심으로 전개된 바왕가 개념에 대해서는 Cousins 2005, 52-70.

14장(22회), 15장(3회), 17장(19회), 19장(1회), 20장(6회), 21장(3회), 22장(4회), 23장(2회).³⁾ Vism의 이러한 용례들은 테라와다 전통이 확립한 세계관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므로 바왕가 개념 전개사를 검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거를 제공해준다. 이에 본 논문은 인식과정이론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바왕가 개념을 가장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14장의 22가지 용례들을 검토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나머지 용례들은 다음 연구에서 이어 검토하겠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Vism는 1950년에 출판된 *Visuddhimagga of Buddhaghosacariya*, ed. by H.C. Warren, revised D. Kosambi.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Oriental Studies를 사용했다.

II. 용례분석

본격적인 용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22개의 용례들이 발견되는 Vism 14장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Vism는 형식적으로는 상윳따 니까야의 한 문구⁴⁾를 설명하는 방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다. 이 한 문구를 통해 테라와다 전통의 광범위한 교리 및 수행체계를 총 23개의 章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들 개별 장들은 다시 戒(1~2장), 定(3~13장), 慧(14~23장)의 범주에 맞추어 서술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14장은 세 번째 주제인 혜를 다루는 첫 번째 장으로서, 먼저 혜(慧, pañña)를 서술하기 위한 여섯 가지 형태의 질문들을 제시한다. 자문자답 형식의 서술은 Vism가 논의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논의의 주제인 혜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및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논의들 속에서 아비담마의 기본적인 개념인 蘊(khandha), 處(āyatana), 界(dhātu), 根(indriya), 諦(sacca), 緣起(paṭiccasamuppāda) 등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Vism는 이들 6가지 개념들이 바로 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bhūmi)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6가지 토대들 중 첫 번째 항목인 五蘊을 하나씩 서술하며 중생을 이루는 물질적 현상(色法)과 정신적 현상(心法)을 총망라한다. 여기서 蘊의 두 번째 하부항목으로 설정된 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22개의 바왕가 용례들이 언급된다.

3) <http://epalipotika.appspot.com/> (검색일자: 2019. 9. 17.)

4) SN. I, 13: sīle patitṭhāya naro sapañño cittaṃ paññañ ca bhāvayaṃ ātāpī nipako bhikkhu so imaṃ vijāṭejaṭam.

첫 3가지 용례들(14.98; 100; 103)은 전체 89심법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법들이 바왕가를 수행하는지 알려준다.

[용례 1:] [무인-이숙-의식계](ekā)는 그럭저럭 원하는 대상에서 일어난 것이기에捨를 수반하고, 조사, 여운,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섯 가지로 [존재]한다.⁵⁾

<용례 1>의 주어인 ekā는 앞 단락(14.97)에서 언급된 무인-이숙-의식계(ahetukavipākā manoviññāḍadhatu)를 지칭하기에 여성형 대명사로 표기되었다. Vism에 따르면 (14.98), 강렬하게 원하는 대상(ekantam iṭṭhārammaṇa)으로부터는 기쁨(somanassa)을 수반한 심법, 즉 무인-이숙-의식계가 일어나지만, 그럭저럭 원하는 대상(iṭṭhamajjhataṭṭārammaṇa)으로부터는捨(upekkhā)를 수반한 심법, 즉 평온하고 안정적인 무인-이숙-의식계가 일어난다. 이러한 심법은 다섯 가지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다섯 가지’란 직역하면 다섯 곳(pañcatṭhānā) -조사, 여운,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 이라는 5가지 심법을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심법이 14.101에서도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직접 바왕가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무인-이숙-의식계를 설명하며 용례1과 동일한 내용 ‘조사 등의 역할을 하는 5가지 의식계(santīraṇādikiccā pañcatṭhānā manoviññāḍadhātū ti)’- 을 반복한다. 따라서 <용례1>과 14.101의 문구를 통해 바왕가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심법을 확인할 수 있다.

- (1)捨를 수반한 무인-이숙-의식계 (upekkhāsampayuttā ahetukavipākā manoviññāḍadhatu)
- (2)捨를 수반한 무인-이숙-의식계 (upekkhāsampayuttā ahetukavipākā manoviññāḍadhatu)

이 두 가지 심법은 형태는 동일하지만 선업(kusala kamma) 혹은 불선업(akusala kamma)에서 비롯된 결과에 따라 2개의 이숙심으로 구분한다. 참고로 무기 자체는 선 혹은 불선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심법이며, 이들은 결과로 일어나는 異熟(vipāka)과

5) Vism., 14.98: ekāiṭṭhamajjhataṭṭārammaṇe pavattisabbhāvato upekkhāsampayuttā hutvā santīraṇa-tadārammaṇa-paṭisandhi-bhavaṅga-cutivasena pavattanato pañcatṭhānā hoti.

작용만 하는 作(kiriya)으로 분류된다. 욕계에서 일어난 이들 두 가지 무인-이숙-의식 계는 인식과정 속에서 바왕가 뿐만 아니라 조사, 여운, 재생연결, 죽음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언급한 죽음이란 ‘죽음심’ 혹은 ‘죽음식’을 의미한다. 이후 용례들에서도 심법의 모든 명칭에는 ‘심’ 혹은 ‘식’이 생략되어 있다.

[용례 2] 한편(pana) 不貪 등 원인을 수반한 이숙을 有因이라 한다. [유인-이숙]은 욕계 선[심]처럼 기쁨 등으로 분류하여 8가지이다. 그러나 선[심]이 보시 등 6가지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유인-이숙]은 바로 小法에 속한 6가지 인식대상에서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 여운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⁶⁾

<용례 2>의 pana는 앞 단원(14.99)에서 서술한 무인-이숙에 이어 이번에는 유인-이숙을 서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접속사이다. (본 논문의 특성상 부분적인 용례들만을 선별하여 검토해야 하므로, Vism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인용문의 도입부에 언급된 접속사 pana의 쓰임을 이처럼 반복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여기서 有因(sahetuka)이란 貪·瞋·癡 혹은 不貪·不瞋·不癡 등 6가지 원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용례 1>에서 살펴본 無因(ahetuka)은 이 6가지 원인들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小法으로 번역한 parittadhamma란 주석전통에서 욕계법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이다. 대표적인 아비담마 주석서인 『앗타살리니(Atthasālinī, Dhammasaṅgani Atthakathā, 이하 Asl)』는 다음과 같이 빠릿따담마를 설명하고 있다: “小 3개조에서 ‘小’란, 전체로부터 파괴되었기에 작은 것을 일컫는다. ‘소량의 소똥 덩어리’ 등에서처럼, 실로 미약하다는 점에서 소량인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小’라고 한다. 이 [小法]들은 欲界法들을 지칭한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parittadhamma를 나누몰리는 limited states로, 초기불전연구원은 욕계로 번역했다.⁸⁾

이를 통해 앞서 <용례 1>과 14.101에서 언급한 2가지 심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8가지 심법이 욕계에서 바왕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sm 14.83에 따

6) Vism., 14.100: alobhādi-vipākahetusampyuttaṃ pana sahetukaṃ. taṃ kāmāvacarakusalaṃ viya so-manassādibhedato aṭṭhavidhaṃ. yathā pana kusalaṃ dānādivasena chasu ārammaṇesu pavattati, na idaṃ tathā. idaṃ hi paṭisandhi-bhavaṅga-cuti-tadārammaṇavasena parittadhammapariyāpannesu yeva chasu ārammaṇesu pavattati.

7) Asl., 44: parittattike samantato khaṇḍitattā appamattakaṃ parittan ti vuccati; ‘parittaṃ gomayapiṇḍan’ ti ādīsu viya. ime pi appānubhāvātāya parittā viyā ti parittā. kāmāvacaradhammānam etaṃ adhivacanam.

8) 대림 2005, 447.

르면, 이 8가지 심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지 않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sampayutta asaṅkhāra)
- (2)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sampayutta saṅkhāra)
- (3)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지 않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vippayutta asaṅkhāra)
- (4)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vippayutta saṅkhāra)
- (5)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지 않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sampayutta asaṅkhāra)
- (6)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sampayutta saṅkhāra)
- (7)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지 않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vippayutta asaṅkhāra)
- (8)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vippayutta saṅkhāra)

여기서 saṅkhāra는 아비담마 전문용어로 사용되어 촉발(prompting), 선동(instigation), 유인(inducement; payoga), 방편적용(upāya) 등의 전문적인 의미를 지닌다. 정신적/물질적, 혹은 내적/외적으로 모종의 영향을 받는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⁹⁾

이상 <용례 1-2>는 총 10개의 심법이 육계에서 바왕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후 이어지는 <용례 3>은 색계에서 바왕가를 수행하는 심법들을 서술한다.

[용례 3] 그리고 색계[이숙심]은 선[심]처럼 5가지이다. 그러나 선[심]은 자와나 [인식]과 정에서 定으로 일어난다. [반면 색계이숙심]은 재생과정에서 재생연결, 바왕가, 죽음[으로 일어난다.]¹⁰⁾

9) Bodhi 2010, 36.

10) Vism., 14.103: rūpāvacaraṃ pana kusalaṃ viya pañcavidhaṃ. kusalaṃ pana samāpattivaseṇa javanavīthi-

<용례 3>이 언급한 5가지는 아래와 같이 五種禪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지칭한다.¹¹⁾

- (1) 尋-伺-喜-樂-三昧心 (vitakka-vicāra-pīti-sukha-samādhīyutta)
- (2) 伺-喜-樂-三昧心 (vicāra-pīti-sukha-samādhīyutta)
- (3) 喜-樂-三昧心 (pīti-sukha-samādhīyutta)
- (4) 樂-三昧心 (pīti-sukha-samādhīyutta)
- (5) 捨-三昧心 (upekkhāsamādhīyutta)

또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Vism 14,104는 <용례 3>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무색계에서 발생하는 4가지 심법들이 바왕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¹²⁾

- (1) 공무변처-禪心 (ākāsānañcāyatanajjhānena sampayutta)
- (2) 식무변처-禪心 (viññāṇañcāyatanajjhānena sampayutta)
- (3) 무소유처-禪心 (ākiñcaññāyatanajjhānena sampayutta)
- (4) 비상비비상처-禪心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jjhānena sampayutta)

이상 <용례 3>까지가 삼계를 관통하며 바왕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심법들을 소개했다면, 이후 <용례 4-5>는 욕계-무기-작에 해당하는 의계와 의식계를 설명해주는 문구들이다. 바왕가는 여기서 이들의 ‘가까운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용례 4] 여기서 意界는 眼識 등에 앞서는 것과 色 등에 대해 아는 것을 특징(lakkhaṇa)으로 하며, 전향으로 기능(rasa)하고, 색 등을 대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paccupaṭṭhāna), 바왕가가 끊어지는 것을 가까운 원인(padatṭhāna)으로 한다. [의계]는 오직捨하고만 연결된다.¹³⁾

yam pavattati. idaṃ upapattiyam paṭisandhi-bhavaṅga-cutivasena.

11) Vism., 14,86.

12) Vism., 14,104: yathā ca rūpāvacaraṃ evaṃ arūpāvacaraṃ pi kusalaṃ viya catubbidhaṃ. pavattibhedo pi ssa rūpāvacare vuttanayo eva.

13) Vism., 14,107: tattha cakkhuvīññāḍipurecara-rūpādivijānanalakkhaṇāmanodhātu, āvajjanarasā, rūpādi-abhimukhabhāvapaccupaṭṭhānā, bhavaṅgavicchedapadaṭṭhānā.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주석전통 이후 모종의 담마를 규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네 가지 기준 -락카나(lakkhaṇa), 라사(rasa), 뺏쭈뺏타나(paccupatthāna), 빠닷타나(padatthāna)-이 적용된다. 먼저 characteristic 혹은 相으로 번역되는 락카나는 담마가 지닌 고유한 특징, 혹은 다른 담마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성질을 의미한다. 라사는 주로 function 혹은 味로 번역되며 또 다른 전문용어인 깃짜(kicca)로 대체되기도 한다. 여기서 깃짜는 어떠한 담마가 수행하는 임무를 지칭한다. 뺏쭈뺏타나는 manifestation 혹은 現起로 번역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마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빠닷타나는 proximate cause 혹은 足處로 번역되며, 모종의 담마가 의존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조건을 가리킨다.¹⁴⁾

Vism는 의계(意界)를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에 앞서 일어나는 심법으로서, 색·성·향·미·촉을 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계는 인식과정 속에서 '전향(āvajjana)'이라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 전향, 즉 의계는 색·성·향·미·촉과 대면하여 스스로를 드러낸다. 편의상 '대면함'으로 번역한 abhimukha-bhāva는 오문인식과정을 촉발하는 미세한 접촉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상응하는 용어로는 『해탈도론』의 夾 혹은 Asl와 Vism에서 등장하는 ganhati 등이 있다.¹⁵⁾ 이와 유사한 용어가 아래의 <용례 9-12>에서도 발견된다. (<용례 9-12> 참고)

의계의 가장 가까운 원인이란, 결국 의계에 바로 앞서 일어나는 심법을 지칭한다. 바왕가의 용례는 바로 여기서 등장한다. 바왕가는 전생의 인식대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심법으로서, 현생의 인식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명백한 '비활동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색법 등 인식대상과의 접촉이 발생할 경우, 바왕가는 동요하고 끊어진다. 바왕가의 끊어짐 직후 전향 등의 활동심, 즉 오문인식과정이 시작된다. 따라서 Vism는 전향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바왕가의 끊어짐(bhavaṅgaviccēda)'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왕가와 전향 간의 즉각적인 선후 관계는 이미 Patt와 『해탈도론』에서도 거듭 서술된 바 있다.¹⁶⁾ 그러나 Vism는 이전 문헌들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있으며, 전문용어를 도입하여 주석전통의 해석방식에 맞추어 인식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14) Karunadasa 2010, 77; 한자어 번역은 水野弘元の パーリ語辭典, 영역은 PED 참고; 한편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들 각각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번역했다. 대림·각목 2017, 112.

15) 김경래 2015, 231-243; 2017b, 55-84 참고.

16) 김경래 2017a, 211-221; 2018c, 753-771 참고.

[용례 5] 반면(pana), 의식계는 두 가지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가 있다. 이 중에서 일반적인 것은捨와 함께하는 無因-作[-의식계]이다. [이는] 여섯 가지 인식대상을 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역할에 따라 오문과 의문에서 결정(votṭhabbana)과 전향(āvajjana)으로 [각각] 기능하고, 그러한 [결정과 전향]인 것(bhāva)으로 나타나고, 무인-이숙-의식계와 바왕가 둘 중 하나(aññatara)가 사라지는 것을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¹⁷⁾

위 인용문에서 pana는 앞서 다룬 의계와 지금 다루고 있는 의식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無因-作-意識界- 를 구분해주는 접속사로서, 여기서는 역접의 의미를 살려 ‘반면’으로 번역했다. Vism는 이처럼 의계와 의식계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식계는 sādharma와 asādharma로 나뉜다. 나나몰리는 ‘shared by all’과 ‘not shared by all’로 각각 번역했고, 초기불전연구원은 ‘공통되는 것’과 ‘특별한 것’으로 번역했다. 14.108의 맥락상 전자는 범부의 의식계를, 후자는 아라한의 의식계를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논자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번역했다. 바왕가의 용례는 오직 전자, 즉 범부의 심법에서만 발견된다.

앞서 의계가 5가지 인식대상(색성향미촉) 만을 앎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의식계는 6가지 인식대상인 색성향미촉법 모두를 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의식계는 오문에서는 결정으로, 의문에서는 전향으로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다. 여섯 번째 인식대상인 법이 포함되어 있기에 의식계는 의계와 달리 의문인식작용에서도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aññatara는 añña의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하므로,¹⁸⁾ <용례 5>에 따르면 의식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인-이숙-의식계와 바왕가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apagama)이다. 앞서 <용례 4>에서 확인했듯 의계는 오문전향의 역할을 한다. 반면 의식계는 오문인식과정에서는 결정의 역할을 하고 의문인식과정에서는 의문전향의 역할을 한다. 오문인식과정에서 결정은 조사 직후에 일어나며, 오문/의문인식과정에서 전향은 바왕가 직후에 일어난다. 따라서 오문에서 조사의 역할을 하는 무인-이숙-의식계(ahetuka-vipāka-manoviññādhātu: <용례 1> 참고)와 바왕가

17) Vism., 14.108: manoviññādhātu pana duvidhā: sādharmaṃ asādharmaṃ ca, tatha sādharmaṃ upekkhāsahagatāhetukakiriyaṃ salārammaṇavijānanalakkhaṇā, kiccavasena pañcadvāraṇamanodvāresu votṭhabbanāvajjanarasā, tathābhāvaṃ paccupatṭhānā, ahetu-kavipākamanoviññādhātu-bhavaṅgānaṃ aññatarāpagama-patṭhānā.

18) Cone I, 46.

가 이들의 가까운 원인으로 언급된 것이다.

위 인용문에 언급된 두 가지 가까운 원인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인식과정이론의 맥락 속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구들을 통해 이미 구체적인 인식과정이론 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Vism*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용례 6>은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서술되었던 89가지 심법들을 모두 열거한 후, 이 심법들이 인식과정이론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14가지 역할을 서술한다.

[용례 6] 이처럼 21가지 선[심]들과 12가지 불선[심]들, 36가지 이숙[심]들, 20가지 작[심]들 이라고 하는 모두 89가지 식들이 있다. 이들은 재생연결, 바왕가, 전향, 붓, 들음, 냄새맡음, 맛봄, 접촉, 수용, 조사, 결정, 속행, 여운, 죽음이라는 14가지 행상(ākāra)으로 일어난다.¹⁹⁾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 *Vism*는 아비담마의 주제가 되는 방대한 심법체계를 전체로 정밀한 인식과정이론을 확립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1) 識과 心과 意는 의미상 동일하다. (viññāṇaṃ cittaṃ mano ti atthato ekaṃ. 14,82)
- (2) 識은 3종류다: 선, 불선, 무기. (jātivaseṇa tividdhaṃ kusalaṃ akusalaṃ abyākatañ ca. 14,82)
- (3) 善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에서 일어난다. (tattha kusalaṃ bhūmibhedato catubbidhaṃ kāmāvacaraṃ rūpāvacaraṃ arūpāvacaraṃ lokuttarañ ca. 14,82)
- (4) 不善心은 욕계에서만 일어난다. (akusalaṃ pana bhūmito ekavidhaṃ kāmāvacaram eva. 14,89)
- (5) 無記心은 이숙과 작으로 구분된다. (abyākataṃ jātibhedato duvidhaṃ vipākaṃ kiriyañ ca. 14,94)
- (6) 異熟은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에서 일어난다. (tattha vipākaṃ bhūmito catubbidhaṃ kāmāvacaraṃ rūpāvacaraṃ arūpāvacaraṃ lokuttarañ ca. 14,94)
- (7) 作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일어난다. (kiriyaṃ pana bhūmibhedato tividdhaṃ kāmāvacaraṃ rūpāvacaraṃ arūpāvacarañ ca. 14,106)

19) *Vism.*, 14,110: iti ekavīsati kusalāni dvādasa akusalāni chatṭiṃsa vipākāni vīsati kiriyaṇī ti sabbāni pi ekūnanavuti viññāṇāni honti. yaṇi paṭisandhi-bhavaṅgāvajjana-dassana-savana-ghāyana-sāyana-phusana-sampaṭicchana-santīraṇa-voṭṭhapanā-javana-tadārammaṇa-cutivasena cuddasahi ākārehi pavattanti.

Vism는 주석서에서 확립된 해석학적 방법²⁰⁾을 도입하여 89개의 심법들을 복잡하게 나열하고 있다. 논의를 위해 이를 단순화시켜 심발생의 유무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식발생의 전체구조가 아래와 같이 드러난다.

출세간	○	x	○	x
무색계	○	x	○	○
색계	○	x	○	○
욕계	○	○	○	○
	선	불선	이숙	작
			무기	

Vism는 더 나아가 삼계와 출세간에 할당된 선·불선·무기심을 더욱 세분화하여 아래와 같이 총 89개로 분석한다. (괄호에 기재된 번호는 Vism HOS本 전기)

- (1) 선심: 욕계 8개 (14.83) / 색계 5개 (14.86) / 무색계 4개 (14.87) / 출세간 4개 (14.88)
- (2) 불선심: 욕계 12개 (14.90-93)
- (3) 무기-이숙심: 욕계 23개(14.95; 100-101) / 색계 5개(14.103) / 무색계 4개(14.104) / 출세간 4개(14.105)
- (4) 무기-작심: 욕계 11개(14.106; 109) / 색계 5개(14.109) / 무색계 4개(14.109)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소위 4위 89법이라 불리는 남방 테라와다 아비담마의 심법 이론이 완성된다. 이처럼 방대하고 세밀한 논의 속에서 바왕가는 89법 중 ‘삼계의 이숙심’으로 규정된다. 주석전통 이후 바왕가의 모든 용례들은 아래의 표에서 언급된 19가지 종류의 심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20) 김경래 2018b, 75-101 참고.

출세간	4	x	4	x
무색계	4	x	4 (4)	4
색계	5	x	5 (5)	5
욕계	8	12	23 (10)	11
	선	불선	이속 (바왕가)	작
			무기	

<용례 7>부터는 앞선 논의들에 전제되어 있던 인식과정이론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14.111-124는 인식과정이론과 이를 구성하는 심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용례 7-8] 그리고(pana) 재생연결식이 사라지면, 바왕가라 불리는 識-[재생연결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재생연결식에 뒤따르는 [識이고,] 바로 그 [재생연결식을 이끌었던 업의 결과(異熟)인 識이며,] 바로 그 [재생연결식의 인식대상과 동일한] 인식대상에서 [재생연결식과] 같은 종류(tādīsa)인 [識]- 이 일어난다. 거듭하여 같은 종류(tādīsa)인 [식, 즉 바왕가식]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바왕가식이] 거듭 지속될 때 다른 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치 강이 흐르듯, 꿈꾸지 않으며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 등에도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바왕가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이처럼 바로 이러한 식들의 발생을 바왕가라고 알아야 한다.²¹⁾

Vism는 14.111-113에서 재생연결식을 언급한 이후 114부터는 바왕가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위 인용문의 pana는 14가지 심법들-재생연결, 바왕가, 전향,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 수용, 조사, 결정, 속행, 여운,²²⁾ 죽음-을 나열함에 있어서, 재생연결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심법인 바왕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접속사이다.

21) Vism., 14.114: paṭisandhiviññāne pana niruddhe, taṃ taṃ paṭisandhiviññānam anubandhamānaṃ tassa tass’ eva kammaṃ vipākabhūtaṃ tasmim̐ yeva ārammaṇe tādisaṃ eva bhavaṅgaviññānaṃ nāma pavattati. puna pi tādisaṃ ti evaṃ, asati santānavinivattake aññaṃsiṃ cittuppāde, nadīsoṭaṃ viya, supinaṃ apassato niddokkamaṇakālādīsu aparimāṇasaṅkham pi pavattati yevā ti. evaṃ tesam̐ yeva viññānaṃ bhavaṅgavaṣaṇāpi pavattī veditabbā.

22)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기존의 번역어인 ‘등류’를 ‘여운’으로 수정했다. 이 용어가 지닌 함의-이전에 일어난 심법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여운’이라는 번역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했다. 대림·각목 2017, 338-341.

Vism는 Patt에서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인식과정이론들을 개별 심법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바왕기는 재생연결식 직후에 이어지는 심법으로서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재생연결식과 동일하다. 바왕기는 직전에 일어났던 재생연결식과 동일한 업의 결과(무가-이숙식)임은 물론 인식 대상 또한 공유한다. 그리고 바왕기는 여타의 다른 심법발생으로 인해 일련의 활동 심으로 이루어진 인식과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된다. 위 인용문에서 거듭 강조된 tādisa는 바로 이러한 연속성과 동일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다.

앞서 확인했듯, 위와 같은 바왕기의 특징들은 비록 산발적이기는 했지만 Mil에서부터 언급되어왔다.²³⁾ 그럼에도 Vism로 대변되는 주석전통에 이르러 본격적인 인식과정이론과 함께 명확한 개념정의가 언급되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용례들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다.

[용례 9~12] 그리고(pana) 이처럼 바왕가가 지속(bhavaṅga-santāna)되는 동안, 중생들의根들이 인식대상을 취할 수 있을 때 色이 眼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동일한] 色으로 인해 眼의 빠사다(pasāda)의 접촉(ghaṭṭana)이 일어난다. 그 이후 접촉으로 인해 바왕가의 동요(bhavaṅga-calana)가 일어난다. 그리고(atha) 바왕가가 사라지면, 바로 그 [동일한] 色을 인식대상으로 삼아서 마치 바왕가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전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作意界가 일어난다. 耳門 등에서도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²⁴⁾

Vism는 앞 단락(14.114)에서 바왕가를 설명한 후, 이제부터 전향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첫 문구에 언급된 pana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환을 표기하기 위한 접속사이다. atha는 순접(and then)과 역접(but) 모두 가능한 접속사이다. 여기서는 앞서 바왕가의 동요에 이어지는 단계를 설명하기 위한 순접접속사로 사용되어, ‘그리고’를 의미한다.

dhātu가 여성명사이므로 현재분사인 vicchindamānā 역시 여성형 1격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작의계가 주체가 되어 바왕가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인상을

23) 김경래 2016b, 269-275.

24) Vism., 14.115: evaṃ pavatte pana bhavaṅgasantāne, yadā sattānaṃ indriyāni ārammaṇagahaṇakkhamāni honti, tadā cakkhuss’ āpāthagate rūpe rūpaṃ paṭicca cakkhupasādassa ghaṭṭanā hoti. tato ghaṭṭanānubhāvena bhavaṅgacalanam hoti. atha niruddhe bhavaṅge tad eva rūpaṃ ārammaṇam katvā, bhavaṅgam vicchindamānā viya, āvajjanakiccaṃ sādhayamānā kiriyamanodhātu uppajjati. sotadvārādisu pi es’ eva nayo.

준다. 짐작컨대 viya는 이러한 ‘행위주체’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용된 모종의 안전장치로 보인다. 즉, 실제로는 작의계가 바왕가의 흐름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바왕가를 끊어버리는 것처럼(bhavaṅgam vicchindamānā viya)’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결합’ 혹은 ‘접촉’을 의미하는 중성명사 ghaṭṭana이다. 이 명사는 인식과정의 발화점이 되는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의 접촉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로서 앞서 <용례 4>에서 언급했던 夾, ganhati, abhimukha-bhāva 등과 유사한 정서를 지닌 단어이다.

[용례 13-14] 한편(pana), 여섯 가지 종류인 인식대상이 意門의 영역에 들어오면, 바왕가의 동요 직후(anantara)에 마치 바왕가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전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捨와 함께하는 無因—作—意識界가 일어난다. 이처럼 2개의 作—識들이 전향으로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²⁵⁾

여기서 pana는 앞서 오문인식과정 설명을 끝내고, 이제부터 의문인식과정을 언급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이다. 마지막에 언급된 ‘2개의 作識(dvinnaṃkiriya-viññānaṃ)’이란, Vism 14.115(<용례 9-12>)에 언급된 작-의계와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무인-작-의식계를 지칭한다. 이 인용문은 오문인식과정과 마찬가지로, 의문인식과정에서도 바왕가 직후 전향이 일어나며, 그 전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가지 作識, 즉 작-의계와 작-의식계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용례 15-16] 그리고(pana) 자와나가 끝날 때 만약 오문에서 인식대상의 인식강도가 매우 크거나, 혹은(ca) 의문에서 [인식대상의 형태가]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육계 중생들의 육계 속행이 끝날 때, 원하는 대상 혹은 앞선 업이나 앞선 속행심 등등으로 인해 어떤 緣(paccaya)이 취해지고, 그 [緣]으로 인해 8가지 유인-육계-이숙 혹은 3가지 이숙-무인-의식계 중에서 하나가 [일어난다.] 마치 흐름을 거스르는 배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뒤따르는 물처럼, 바왕가의 인식대상과는 다른 인식대상에서 속행한 속행[심]을 따라 이숙심이 두 번 혹은 한 번 일어난다. 그것은 속행이 끝날 때 바왕가의 인식대상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속행의 인식대상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나기에 ‘그 [속행의 대

25) Vism., 14.116: manodvāre pana chabbidhe pi ārammaṇe āpāthagate, bhavaṅgacalanānantaraṃ bhavaṅgam vicchindamānā viya āvajjanakiccaṃ sādhamānā ahetukakiriyamanoviññādhātu uppajjati upekkhāsahagatā ti. evaṃ dvinnaṃ kiriyaviññānaṃ āvajjanavasena pavatti veditabbā.

심을 대상으로 하는(tad-ārammaṇa)'이라고 불린다.²⁶⁾

위 인용구의 pana는 이전에 언급된 속행에 이어 여운을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이다. 이처럼 Vism는 인식과정의 개별적인 심법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며 상세한 서술을 이어간다. 반면, 뒤이어 언급된 ca는 오문인식과정과 의문인식과정을 구분하는 접속사로서 이는 '그리고'보다는 '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²⁷⁾

한편, '매우 큰'으로 번역한 atimahanta는 인식대상 자체의 크기가 아닌 그 대상이 오문에서 인식되는 '강도'를 의미한다. 유사한 용어로서 '분명한'으로 번역한 vibhūta는 의문에서 인식대상이 인식되는 명확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나 몰리는 이 두 용어를 very vivid one과 clear로 각각 번역했다.

<용례 15-16>은 초기불전연구원이 '등록' 혹은 '여운'으로 번역한 tad-ārammaṇa를 설명하는 문구이다. 일반적으로 일련의 인식과정이 끝나면 심은 바왕가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인용문에서 언급했듯, 오문이나 의문에서 발생한 인식의 강도 혹은 선명도가 강할 경우, 곧바로 바왕가로 복귀하지 않고 인식의 여운이 남아있게 된다. Vism는 바왕가로 전환되기 이전에 벌어질 수 있는 이 특수한 상황을 총 11개의 심법이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용례 17~21:] 그리고 여운이 끝날 때 다시 바왕가가 일어난다. 다시 [일어난] 바왕가가 끊어지면 전향 등이 [일어난다.] 이처럼 조건이 갖추어진 심상속은 바왕가 직후에 전향(bhavaṅgānantaraṃ āvajjanaṃ), 전향 직후에 봄 등과 같은(āvajjanaṅgānantaraṃ dassaṇādīni ti) 심규칙으로, 어떤 하나의 삶(有)에서 바왕가가 마감될 때까지 거듭 반복해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의 삶에서 모든 [심들 중] 마지막 바왕가심을, 그 삶에서의

26) Vism., 14.122: javanāvasāne pana sace pañcadvāre atimahantaṃ, manodvāre ca vibhūtaṃ ārammaṇaṃ hoti, atha kāmāvacarasattānaṃ kāmāvacarajavanāvasāne itthārammaṇādīnaṃ purimakammajavanacittādīnaṃ ca vasena yo yo paccayo laddho hoti, tassa tassa vasena atthasu sahetukakāmāvacaravipākesu fīsu vipākāhetuka-manoviññādhātūsu ca aññataraṃ, paṭisotagataṃ nāvaṃ anubandhamānaṃ kiñci antaraṃ udakam iva, bhavaṅgass' ārammaṇato aññasmiṃ ārammaṇe javitaṃ javanaṃ anubandhantaṃ dvikkhattuṃ sakiṃ vā vipākaviññānaṃ uppajjati. tad etaṃ javanāvasāne bhavaṅgassa ārammaṇe pavattanārahaṃ samānaṃ tassa javanassa ārammaṇaṃ ārammaṇaṃ katvā pavattatā tadārammaṇaṃ ti vuccati.

27) 이와 유사한 ca의 용례가 후대 아비담마 해설서인 『아비담맛타상가하(Abhidhammatthasaṅgaha)』에서도 발견된다. Abhidhammatthasaṅgaha, 45: atimahantaṃ mahantaṃ parittaṃ atiparittaṃ cā ti pañcadvāre manodvāre pana vibhūtaṃ avibhūtaṃ cā ti chadhā visayappavatti veditabbā. (본 논문에서 Abhidhammatthasaṅgaha는 Bodhi의 편집본을 참고했다.)

죽음이기에, 죽음[심]이라 부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19가지가 된다. 이처럼 19가지 이숙식들이 죽음[심]으로 일어난다고 알아야 한다.²⁸⁾

위 인용문에서 언급된 일련의 심법들은 *anantara*와 복합어를 형성한다. 이러한 표현은 인식과정의 모든 심법들이 무간연(*anantara paccaya*)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했듯, 무간연에 바탕을 둔 인식과정이론은 이미 *Patt*에서부터 확립되어 있었다.²⁹⁾ *Vism*는 *Patt*가 정립한 24緣(*paccaya*)을 도입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Vism* 17,66-100)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위와 같이 인식과정이론에 무간연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간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심법들은 정확한 법칙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niyama*는 1류 동사어근 *ni+√yam* (to govern, control)에서 파생된 남성명사로서 *niyāma*로도 표기되며, 주로 제한(a limitation), 불가피한 결과(an inevitable outcome), 지정된 방식(a specified manner)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³⁰⁾ 인식과정이론에서는 심법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멸을 거듭하는 것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식과정의 규칙은 *Vism*보다 앞서 제작된 『해탈도론』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Vism*가 색법과 대응되는 상대적인 찰나론은 물론 각 심법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심법과 그 심법들 간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탈도론』은 단순히 심법들의 순서만을 지정하고 있다.³¹⁾

“따라서 이는 19가지가 된다(*tasmā tam pi ekūnavīsatividham eva hoti*)”라는 문장은 죽음심이 결국 재생연결심이나 바왕가심과 동일하게 19가지 이숙심이라는 점, 다시 말해 이 3가지 심법들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심법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Patt*에서도 3가지 심법들은 암묵적으로 동일시되고 있지

28) *Vism.*, 14,123: *tadārammaṇāvāsāne pana puna bhavaṅgam eva pavattati, bhavaṅge vicchinne puna āvajjanādīni ti evaṃ laddhapaccayaṃ cittasantānaṃ, bhavaṅgānantaraṃ āvajjanaṃ, āvajjanānantaraṃ dassanādīni ti cittaniyamavasena*’ eva punappunaṃ tāva pavattati, yāva ekasmiṃ bhavaṅgassa parikhayo. ekasmiṃ hi bhava yaṃ sabbpacchimaṃ bhavaṅgacittaṃ, taṃ tato bhavato cavanattā cuti ti vucati. tasmā tam pi ekūnavīsatividham eva hoti. evaṃ ekūnavīsatiyā vipākaviññāṇaṃ cutivasena pavatti veditabbā.

29) 인식과정이론에 적용된 무간연에 대해서는 김경래 2016a, 939-956 참고.

30) *Apte*, 903; *Cone II*, 598-599.

31) 김경래 2016a와 2018c 참고; 테라와다 전통이 주장한 심법과 색법 간의 상대적인 찰나론에 대해서는 Kim 1999, 186-216 참고.

만,³²⁾ Vism에 이르러 위와 같이 명확한 하나의 명제로 확립된다.

[용례 22] 그리고(pana) 거듭하여 죽음[심]으로부터 재생연결[심]이, 재생연결[심]으로부터 바왕가가 거듭 [반복된다.] 이처럼 있음(bhava, 有), 태어남(gati, 趣), 머뭇(thiti, 住), 거처(nivāsa, 居住)들 속에서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은 끊임없이 심상속을 한다. 그러나(pana) 여기서 아라한을 증득한(pāpunāti) [중생]은 죽음심이 사라질 때 [자신도] 또한 사라진다.³³⁾

첫 번째 pana는 이전의 용법들과 유사한 용례, 즉 앞 단락의 죽음심 설명 이후 재생연결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접속사이다. 이 접속사는 앞선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용상 이어지는 다음 내용을 연결해준다. 반면 두 번째 pana는 죽음심-재생연결심-바왕가심을 거듭하며 윤회하는 중생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Vism는 일반중생이 윤회를 거듭하는 과정을 일련의 인식과정, 즉 재생연결로 시작된 삶이 바왕가로 유지된 후 최후의 죽음심에 이르게 되고, 이 죽음심은 곧바로 다음 생의 재생연결로 이어진 후 다시 바왕가로 새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아라한은 더 이상 윤회를 거듭하지 않기에 죽음심 이후 재생연결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앞서 <용례 6>을 검토하며 확인했듯, 바왕가는 총 19개의 심법이며, 이들은 출세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용례 22>는 바로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III. 결론

이상 Vism 14장에서 발견되는 22개의 바왕가 용례들을 검토해보았다. 비록 Vism가 기존의 바왕가 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Vism 14장의 용례들은 바왕가를 보편적인 심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Mil에서부터 바왕가는 특수한

32) 김경래 2017a, 215-216.

33) Vism., 14.124: cutito pana puna paṭisandhi, paṭisandhito puna bhavaṅgan ti evaṃ bhava-gati-thiti-nivāsesu saṃsaramānānaṃ sattānaṃ avicchinnaṃ cittasantānaṃ pavattati yeva, yo pan' ettha arahattaṃ pāpunāti, tassa cuticitte niruddhe niruddham eva hoti ti.

심법의 맥락에서 다루어졌고, Patt에 이르러 이미 인식과정이론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일단 『해탈도론』은 논외로 한다.) 그러나 Vism 14장은 이전의 문헌들과 달리 심법이 지닌 공통적인 특징들, 즉 테라와다 특유의 방대한 심법 이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그 안에 속해있는 일부 심법으로서의 바왕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총 89개의 심법들 중에서 36개의 이숙심 중 19가지가 바왕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19가지 이숙심은 출세간을 제외한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바왕가 뿐만 아니라 재생연결과 죽음의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다. 바왕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19이숙심들은 여타의 심법들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심소법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밀한 인식과정의 법칙 속에서 무간연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본론에서 확인했던 19가지 이숙심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욕계심>

- (1) [善業]捨를 수반한 무인-이숙-의식계 (upekkhāsampayuttā ahetukavipākā manoviññāḍadhatu)
- (2) [不善業]捨를 수반한 무인-이숙-의식계 (upekkhāsampayuttā ahetukavipā kā manoviññāḍadhatu)
- (3)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지 않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sampayutta asaṅkhāra)
- (4)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sampayutta sasaṅkhāra)
- (5)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지 않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vippayutta asaṅkhāra)
- (6) 기쁨을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은 心 (somanassasahagata ñāṇavippayutta sasaṅkhāra)
- (7)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지 않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sampayutta asaṅkhāra)
- (8)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며 영향 받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sampayutta sasaṅkhāra)
- (9)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지 않은 心 (upekkhāsahagata ñāṇasampayutta asaṅkhāra)

ñānavippayutta asaṅkhāra)

- (10)捨를 동반하고 지를 수반하지 않으며 영향 받은 心 (upekkhāsahagata ñānavippayutta asaṅkhāra)

<색계심>

- (11) 尋-伺-喜-樂-三昧心 (vitakka-vicāra-pīti-sukha-samādhīyutta)
(12) 伺-喜-樂-三昧心 (vicāra-pīti-sukha-samādhīyutta)
(13) 喜-樂-三昧心 (pīti-sukha-samādhīyutta)
(14) 樂-三昧心 (pīti-sukha-samādhīyutta)
(15) 捨-三昧心 (upekkhāsamādhīyutta)

<무색계심>

- (16) 공무면처-禪心 (ākāsānañcāyatanajjhānena sampayutta)
(17) 식무면처-禪心 (viññāṇañcāyatanajjhānena sampayutta)
(18) 무소유처-禪心 (ākiñcaññāyatanajjhānena sampayutta)
(19) 비상비비상처-禪心 (nevasaññānāsaññāyatanajjhānena sampayutta)

비록 본 논문에서 다룬 22가지 용례들만으로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위와 같은 19심법들이 바왕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바왕가 역시 여타의 심법들과 동일한 심법, 즉 명확한 인식대상을 지니고 있는 능동적인 심법임을 의미한다. 논자는 다음 연구를 통해 Vism의 나머지 바왕가 용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바왕가 역시 명확한 인식대상을 지니고 있는 활동심이라는 점을 재확인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왕가가 결코 심적인 ‘공백’ 혹은 ‘비활동’ 상태를 지칭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과는 조우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개념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약호

- Asl *Atthasālinī*, ed. by E. Müller, London, Pali Text Society, 1979; Pe Maung Tin, *The Expositor (Atthasālinī)* Vols. I, II,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6.
- Apte <http://dsal.uchicago.edu/dictionaries/apte/> 검색: 2019년 9월 17일
- Cone *A Dictionary of Pāli I & II*, by Margaret Cone. Oxford & Bristol: The Pali Text Society, 2001 & 2010
- Patt *Paṭṭhāna*, http://patthana.net/?page_id=36 검색: 2019년 9월 17일; U Nārada, *Conditional Relations (Paṭṭhāna) Vol. II*, Bristol, The Pali Text Society, 2011.
- PED <http://dsal.uchicago.edu/dictionaries/pali/> 검색: 2019년 9월 17일
- SN *Samyutta-Nikāya*, Vol. I, ed. by M. Léon Feer, Oxford, Pali Text Society, 1991.
- Vism *Visuddhimagga*, ed. by H.C. Warren, revised D. Kosambi,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Harvard Oriental Studies, 1950.

1차 자료

- Abhidhammattha Saṅgaha*, ed. by B. Bodhi,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2010.
- パーリ語辞典: <http://palidictionary.appspot.com> 검색: 2019년 9월 17일

2차 자료

- 김경래. 2015. 'Observations on Some Technical Terms in the **Vimuttimagga* and their English Translations: An Examination of *Jiā*(夾) and *Visayappavatti*,' *Buddhist Studies Review* 32.2: 231-243. Equinox.
- . 2016a. 'Avīci Hell and Wújiān in the Cognitive Process: Observations on Some Technical Terms in the *Jiétuōdào lùn* (**Vimuttimagg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4: 939-956, Springer.
- . 2016b.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1):

- Nettipakaraṇa와 Milindapañha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8호: 257-282, 서울: 불교학연구회.
- _____. 2017a.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 (2): 『뺏타나(Paṭṭhāna)』 제1권 (Chaṭṭhasaṅgāyana vol.1)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50호: 199-225, 서울: 불교학연구회.
- _____. 2017b. 「종교 내러티브(Narrative)에 나타난 citta-vīthi: 『解脫道論』의 ‘菴羅果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47: 55-84,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 _____. 2018a. 「동남아 테라와다의 정체성 확립과 바왕가(bhavaṅga) 개념의 전개 (3): 『뺏타나(Paṭṭhāna)』 제2권 용례①~⑰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55호: 247-274, 서울: 불교학연구회.
- _____. 2018b. 「마띠까 주석의 구조와 방법: Atthasālinī의 ‘마띠까 주석(mātikāya anupubbapadaṅṅaṇa)’을 중심으로, 『불교연구』 49: 75-101,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 _____. 2018c. ‘Observations on the term Bhavaṅga as described in the Jiétuōdào lùn (*Vimuttimaggā): Its proper English translation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46: 753-771, Springer.
- 대림. 2015. 『청정도론 2』,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대림·각목. 2017. 『아비담마 길라잡이 1』,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BODHI, Bhikkhu. 2010.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COLLINS, Steven. 2004. *Selfless Persons, Imagery and Thought in Theravāda Buddh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USINS, Lance. 2005. ‘The Paṭṭhāna and the Development of the Theravādin Abhidhamma’, *Buddhism IV*, ed. by Paul William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52-70.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9: 22-46, 1981>
- GETHIN, Rupert. 2005. ‘Bhavaṅga and Rebirth According to the Abhidhamma’, *Buddhism IV*, ed. by Paul William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59-181. <*. *The Buddhist Forum. Vol III*, London: SOAS, 1994: 11-35>
- KARUNADASA, Y. 2010. *The Theravāda Abhidhamma: Its Inquiry into the Nature of Conditioned Reality*, Hong Kong: Center of Buddhist Studies,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KIM, Wandoo. 1999. “The Theravāda Doctrine of Momentariness: A Survey of Its

Origins and Development”, Dissertation, Balliol College, Oxford.

KYAW, Pyi Phyo. 2014. “Paṭṭhāna (Conditional Relations) in Burmese Buddhism”,
Dissertation, King’s College London.

Observations on the Term *Bhavaṅga* in the *Visuddhimagga* (Chapter 14)

Kyungrae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e term *bhavaṅga* occurs eighty one times through the *Visuddhimagga*, the representative abhidhamma treatise or commentarial text within Southeast Asian Theravāda tradition. This article scrutinizes the twenty two usages of *bhavaṅga* which are found in the fourteenth chapter of the *Visuddhimagga*. The discussions which are found in these occurrences adopt the perspectives of *Paṭṭhāna* or the Great Treatise (Mahāpakaraṇa), the seventh abhidhamma treatise, such as the proximate condition (*anantara-paccaya*), the cognitive procedure (*citta-niyama*) and so on. The *Visuddhimagga*, however, discusses a much developed and systematic cognitive process (*citta-vīthi*) defining fourteen modes of it, namely, rebirth-linking (*paṭisandhi*), *bhavaṅga*, adverting (*āvajjana*), seeing (*dassana*), hearing (*savana*), smelling (*ghāyana*), tasting (*sāyana*), touching (*phusana*), receiving (*sampañcchana*), investigating (*santīraṇa*), determining (*voṭṭhapana*), *javana*, registration (*tadārammaṇa*) and death (*cuti*). Furthermore, it enumerates eighty nine kinds of consciousness (*citta*) such as twenty one kinds of wholesome consciousness (*kusala citta*), twelve kinds of unwholesome consciousness (*akusala citta*), thirty six kinds of resultant (*vipāka*) and twenty

kinds of functional (*kiriya*). According to the *Visuddhimagga*, nineteen kinds of resultant are in charge of *bhavaṅga*. It implies that *bhavaṅga* is also an active consciousness same as the other seventy modes of consciousness. This very discussion sets the *Visuddhimagga* apart from other previous treatises.

Key Words : *Visuddhimagga*, *bhavaṅga*, the cognitive process (*citta-vīthi*), resultant (*vipāka*), nineteen kinds of resultant

2019년	9월 17일	투고
2019년	10월 14일	심사완료
2019년	10월 17일	계재확정